

한·미·일 정상, 대북 추가제재 긴밀 협력

안보리 북 핵실험 규탄 논의 즉각 착수 34개 국가·5개 국제기구 비난 성명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13일 대북 추가제재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0시 10분부터 20여 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은 핵우산을 통한 역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포함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 한일 간, 한미일 간 공동 대처해나가고 중국과도 협력해나가기"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현재 전 세계 34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5개 국제기구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안보리 연례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안보리는 중대 조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북 핵 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례성명에 합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내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겸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중심이 된 북핵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우리가 본 것과 같은(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일지
한국시간 기준

첫 번째 결의 1993. 5. 11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한 결의 825호.

두 번째 결의 2006. 7. 15
북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발사에 대한 북한 도발 규탄, 미사일 관련 불차·상용·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 등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 695호.

세 번째 결의 2006. 10. 9
북 1차 핵실험 강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틀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

네 번째 결의 2009. 5. 25
북 2차 핵실험 강행, 유엔,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 채택.'

다섯 번째 결의 2013. 1. 23
2012.12.12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유엔, 북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안보리에서 채택. (결의 대상 단체 17곳, 개인 9명 등)

여섯 번째 결의안 논의 착수 2013. 2. 13
2013.2.12 북 3차 핵실험 강행에 유엔, 북 3차 핵실험 강력 규탄,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즉각 착수. (결의 2007호에 명시된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 논의에 나설 것 강조, 대북 제재 추가 강화 방안 추진 예상)

연방뉴스

기자 노트

‘셀프 훈장’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스스로 받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며, 따라서 역대 대통령 내외가 모두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번 훈장 수여가 논란이 된 것은 스스로 수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수여했다. 직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훈장 수여 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때 훈장을 받기보다 5년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할 때 받는 게 타당하다”며 고사했다가 퇴임 한 달 전인 2008년 1월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세계경제위기 등을 거론하며 훈장 수여를 미루다가 이번에 수여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셀프(self) 훈장’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뻔뻔함을 겨루는 율리피크 있으면 금메달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셀프 훈장’을 받으면서 서민의 피눈물을 빼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도 5년 전 노 전 대통령 내외의 훈장 수여에 대해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훈장 수여를 결정하는 것은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격”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면 이는 훈장으로서 가치를 갖기보다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헛갈리지 않도록 ‘대통령훈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나을 듯하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을 가리는 의미라면 후임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려해 볼 일이다.

/jkpark@kwangju.co.kr

한미, 북핵 선제타격 협의

맞춤형 억제전략 논의

한미 군 당국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의 결의안을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EDPC 회의는 접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핵 억제전략을 논의한다”며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DPC는 임관된 국방정책실장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다.

지난해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군사·외교·정보·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망라된 북한 핵위협 대비 맞춤형 전략을 EDPC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향후 수립될 맞춤형 전략에서 군사적 대응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연합뉴스



김성환 외교교통부장관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3일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근로자 정상 출·입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13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정상 출·입경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경의선 CIQ에서 평소처럼 출·입경을 밟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입경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CIQ 출·입경을 신청한 인원은 출경과 입경 각각 11회 1094명, 10

406명이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CIQ를 방문한 근로자들은 “전날 북 핵실험 뉴스를 들었지만 출·입경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류우의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년내 워싱턴 핵공격 가능” 北 간부 2011년 주장

내부 강연서 발언... 日 마이니치 보도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가 2011년 내부 강연회에서 “5년 안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워싱턴 DC)을 핵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1년 여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당 간부의 치안관계자 상대 강연회 음성 기록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당 간부는

“우리나라의 핵무기는 5년 안에 소형화할 수 있다”며 “무게 500kg 이하로 만들면 미사일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소형화하면) 하와이나 괌을 공격할 수 있다”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북한에서) 1만 2000km 이상 거리가 있지만, 이 문제도 5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핵무기 소형화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방중 기간에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으로 이 목표에 크게 다가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293명 ‘선플정치’ 동참

“아름다운 말·글로 화합의 정치 이룩”

여야 국회의원 293명이 아름다운 말과 글을 사용하고 행동하는 ‘선플정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에 게 19대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선플정치 선언문을 전달했다.

이 선언문에는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 행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화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날 “선플달기운동을 실시한 학교나 지역에서는 언어습관이 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속속 보고됐다”며 “국회에서도 품격 있는 언행과 행동을 습관화하면 서로 존중하는 정치 통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상설의 정치를 주도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플 선언 서명을 공동주관한 민병철 선플국민운동본부 이사장(전 국제 교수)은 “현역 국회의원 98%가 참여한 선플정치 선언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플달기운동은 지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주축이 돼 인터넷상에서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달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6000여개 학교와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구정량) 광주 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미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중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1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순번서건내면)